

전북대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수출길 열다

‘글로벌 시장개척단’ 통해 18건의 MOU 체결 성과 올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가 최근 베트남과 태국 등을 찾아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길을 여는 성과를 올렸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를 비롯, 호원대, 우석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5개 센터는 전북 네트워크 창업보육센터(JBNBI) 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8월 27일부터 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18건의 MOU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시장개척단은, 창업 초기 기업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4년째 진행, 전북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연구마을지원사업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 IINC+ 사업단 등 전북대 내 사업단들이 공동으로 시장개척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들과 매칭될 수 있도록 기존 베트남 바이어를 포함, 태국 바이어들을 추가 섭외해 참여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기업 아이템 검증도 진행하며 바이어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특히,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아이나라’가 베트남 법인과 3년 간 10만 불의 투자유치 계약 체결,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고 이를 비롯한 다른 참여기업들도 MOU 체결과 현장 판매를 진행해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베트남법인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나라의 제품이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는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3년간의 광고 끝에 판매 계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대규 창업보육센터장은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진 이번 사례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8월 27일부터 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18건의 MOU 체결 성과를 올렸다.

를 발판으로 지역의 좋은 기업 발굴, 베트남과 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역 우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순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연구마을 입주기업이 시장 잠재

력이 큰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노사합동 사랑나눔 봉사

군산 전력지사는 5일 관내 전력설비 인근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지원, 전기요금 지원(100만원상당)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폭염과 폭우 등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관내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특히,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쌀과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 정길 지체장애(50, 대야면) 가구에게는 1년간 전기요금 지원을 약속 했다.

더불어, 안주(88, 임피면) 어르신은 국가유공자인데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며 복지할인제도에 물어 보고 욕내 노후배설 누전점검을 해주어 안심이라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박종용 군산 전력지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며 사회적 배려자에게 밝고 따뜻한 희망에너지를 전달하는 한국전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참두릅은 구림이 전국 1등”

구림농협 두릅 공선출하회 ‘우수생산자조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구림농협 두릅공선출하회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2018년 우수 생산자 조직’에 선정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구림농협은 2016년 회원 6명으로 두릅 공선출하회를 결성, 판로확보를 위해 시장개척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전략으로 2018년에는 56명의 공선회원이 61톤의 두릅을 출하, 11억 9,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 했다.

또한, 이런 실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순창군의 전폭적인 유무형의 지원과 순창 조공법인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김영태 기자

김복남 두릅 공선출하회장은 “처음 공선출하회를 결성했을 때, 갈등과 시행착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농협과 회원 간의 소통과 양보를 통해 단일품목 10억원 매출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두용 구림농협조합장은 “구림농협 두릅 공선출하회는 참두릅의 소포장 및 신선유통 시스템을 구축, 롯데마트 점점에 전속납품과 농협 하나로유통센터 등 대형유통매장에 공판장 출하능가에 비해 kg당 3,000원이 상을 받아 추가 소득에 기여한다”며, “참두릅에 한해서는 구림 참두릅이 전국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사랑 한가득 주먹밥’

군산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 초청 무료 점심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5일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한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 ‘제18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매해 임직원 급여 1%를 기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 점심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 실천하기 위해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강민준 군산시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직접 만든 주먹밥과 국수 등으로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군산의료원 공공의료팀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건강 체크를 함께 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을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5일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한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 제18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과 군산의료원은 지난달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

한 사회공헌 의료 업무협약 체결, 이날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전문가 초청 ‘산업안전·보건관리’ 회의

전북지방우정청은 5일 우정청 대회의실에서 총괄우체국 산업안전, 보건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분야별 재해와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더불어 산업안전, 보건관리 이해 및 관리감독자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됐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여러분의 책무가 크다”며 참석자들 노고를 격려,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우려되는 근골격계 및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 3일부터 산업안전 전문가를 초청한 도내 총괄우체국 순회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